

高麗·李朝陶磁의 新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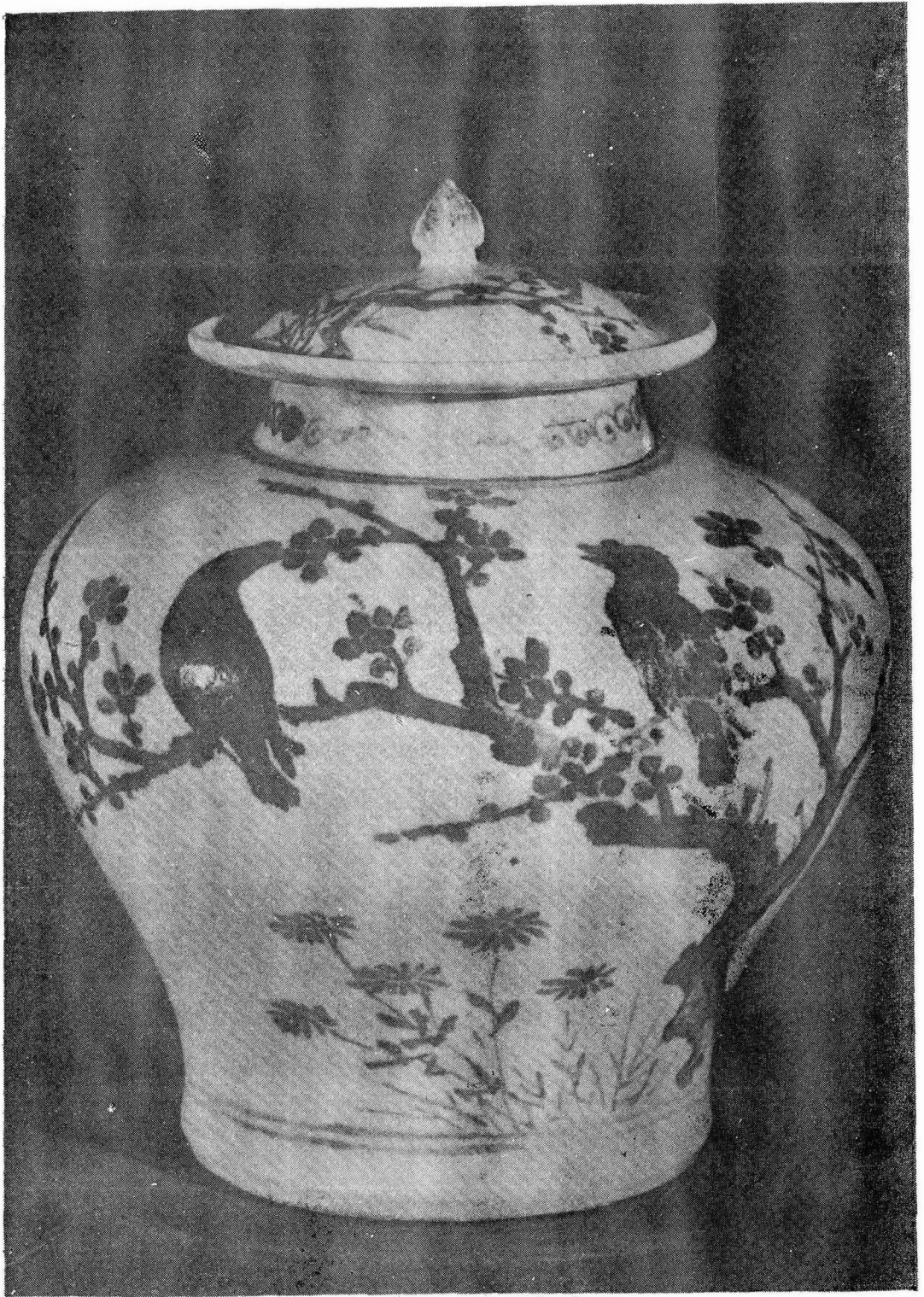
崔 淳 雨

近來한 十年사이 서울과 서울近郊에서 버려지고 있는 큰 規模의 여러 土木工事に 따라서 發見된 出土遺物은 莫大한 數에 이르고 있다. 말하자면 李朝의 首都였던 서울과 서울近郊에는 質과 量으로 다른 地方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李朝時代遺物이 埋藏되어 있었던 것이다. 다행이 이번 韓國美術二千年展에 出品된 民間의 재 資料중에는 이러한 서울地方出土의 名品들이 적지 아니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된다. 다음의 記錄은 그중에서 두드러진 몇 개의 例를 추려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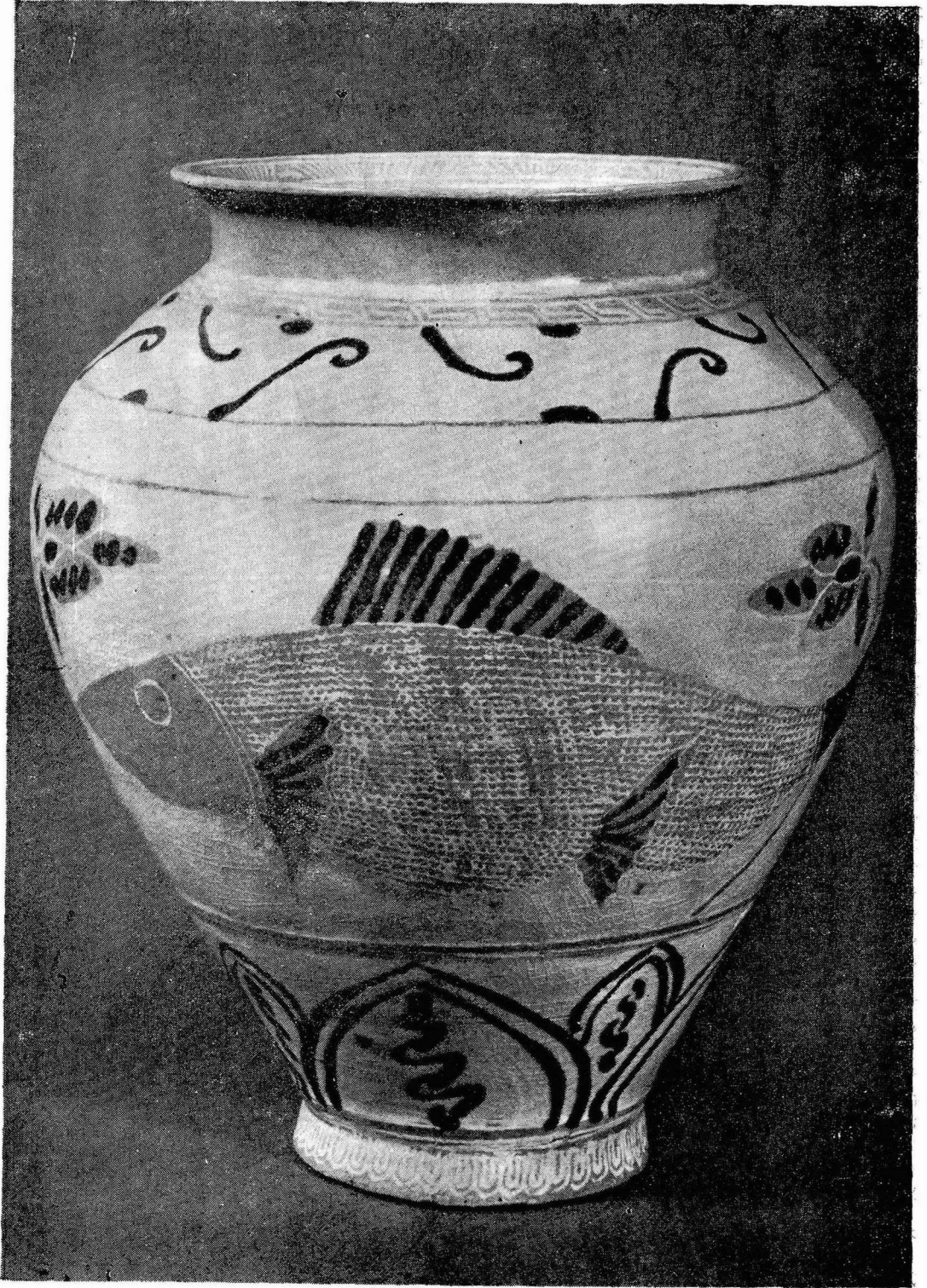
一、青華白磁梅鳥文壺

中國 明代 成化·嘉靖年間에 屬하는 青華白磁壺形의 餘韻이 짙은 作品으로서 항아리의 우뚝한 입이 안으로 오그라진 格式과 어깨가 豐饒하고 아래도리가 홀쳐진 얇은 키, 그리고 연봉꼭지가 붙은 뚜껑이 모두 그러한 양식에 든다. 다만 明代항아리의 곡선은 대개 풍요한 어깨로부터 밋밋하게 굽다리 쪽으로 완만하게 좁혀진데 비해서 이 항아리는 허리 아래에서 곡선이 안으로 우아하게 휘여들어서 이 조항아리 독특한 곡선미의 基調를 드러내고 있는 점이 주의된다. 항아리 장식으로는 胴體部分에 크게 둘러그린 매화나무 한 그루와 그 가지 위에 앉은 새 한 쌍의 青華 그림을 主題로 삼고 있다. 또 굽다리의 언저리에는 역시 青華로 平行雙線테를 두르고 그 테 위의 매화나무 아래에는 들국화 한 모음을 그려 넣었으며 병목 언저리에는 雙線테를 그린 다음 항아리 들레에는 草文을, 뚜껑에는 梅花 그루 밑에 叢竹이 있는 그림을, 寶珠形 꼭지에는 연꽃봉우리를 모양으로 青華칠을 해서 장식하고 있다. 이러한 格式의 青華白磁는 거의 李

朝 青華의 草創期 作品이며 이것은 길고도 울렁진 青華發色과 梅鳥그림에 秋草를 配圖한 特色과 아울러 그 時代를 가리키고 있다. 즉 검루르면서 部分的으로 명을지고 또 青華의 心部에 鐵呈色이 나타나기도 하는 變化 많은 青華빛의 짙은 맛은 李朝時代의 草創期 青華가 아직도 技術的으로 定着되지 못했을 當時의 樣相이었다. 이러한 時代의 青華白磁 항아리중에서 이와 흡사한 좋은 例는 元 李王家美術館所藏品으로서 지금은 國立中央博物館에 合流된 青華白磁梅鳥文항아리이며 青華의 發色도 그러하고 梅花의 樹枝法이나 항아리 전체의 곡선도 매우 가까운 作品이다. 이러한 部類의 青華白磁는 京畿道 廣州郡 道馬里 白磁窯址 發掘에서 破片이 檢出된 例①가 있으며 이 道馬里 青華白磁窯址는 대략 十五세기後半期의 草創期 青華白磁를 包含한 代表的인 李朝 司饗院分院窯로 推定되는 곳이다. 이러한 草創期 青華白磁의 年代는 李朝實錄과 成倪의 文集 備齋叢話의 記錄으로서 대강 李朝世祖年間(一四五五—一四六八)에 이루어진 것으로 推定된다. 즉 世祖實錄에 따르면 全羅道 敬差官 丘致峒이 順天府의 康津縣에서 回回靑에 가까운 鑛物質彩料를 採取하는데 成功했으며 特別 康津縣에서 採取한 彩料는 靑鐵이라고 이름지었음을 전해 주고 있다. 즉 丘致峒은 世祖九年(一四六三)에 順天府에서 採取한 彩料로 青華白磁를 구워서 進上했으며 아울러 康津所產의 靑鐵도 進上했던 것이다.② 이러한 世祖實錄의 記錄을 뒷받침하는 事實이 睿宗實錄에도 나오는데 이에 따르면 康津縣에서 採取한 回回靑으로 青華白磁를 試燻하도록 全羅道觀察使에게 下命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③ 이러한 國產 青華의 開發試圖과 때를 같이 해서 世祖는 한편으로 中國에서 回靑을 求하게 해서 青華白磁를 구웠으며 그 결과는 中國의 青華白磁와 다름이 없었다는 기록이 備齋叢話에도 나오고 있다. 이상의 事實들로 미루어 보면 世祖年間은 青華白磁技法의 開發期였음이 分明하고 따라서 이 時代의 青華白磁의 釉調가 보여주는 不安定한 窠變의 特色도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다. 어쨌든 이 青華白磁梅鳥文壺는 그러한 時代의 呼吸을 가장 잘 드러낸 典型的인 作品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아울러 畫員의 손으로 그려진 所謂 畫沙器의 장식그림에 남겨진 李朝花鳥畫의 情趣, 그리고 成化 嘉靖年間의 明代 항아리가 지니는 曲線이 李朝의 인



青華白磁梅鳥文壺(洪斗榮氏所藏)



粉青砂器象嵌鐵繪魚文壺(黃圭董氏所藏)

壺形으로 國風化되어 가는 過渡的인 모습을 具體的으로 說明할 수 있는 좋은 作品이라고 할 수 있다。(洪斗榮氏所藏 總高一六·五cm、底徑九cm)

二、粉靑沙器象嵌鐵繪魚文壺

靑磁象嵌으로 부터 粉靑沙器象嵌文으로 移行하는 過程을 잘 나타낸 作品의 하나로서 象嵌技法과 粉靑剝地法에 걸려서 대담한 鐵繪文을 장식한 매우 稀貴한 例이다. 粉靑그릇으로서는 드물게 보는 精選된胎土 위에 部分部分에 매우 정성드린 繩縵文을 印花했으며 口椽部 안쪽에는 草文을, 항아리 목인저리에 雷文을, 굽다리 周椽에는 劍頭形으로 표현된 一種의 蓮瓣文帶를 象嵌해 넣어서, 이러한 格式들이 바로 高麗時代 靑磁象嵌法의 眞은 餘韻임을 立證해 주고 있다. 항아리 兩面에 한 마리씩의 큰 물고기의 胴體를 繩縵文으로 表現하고 나서 물고기의 머리部分과 지느러미部分만은 그대로 剝地해서 素地色을 드러낸 뒤에 눈은 白象嵌으로, 지느러미는 鐵繪로 자기 그려넣어서 장식意匠의 多樣性을 誇示하고 있다. 물고기의 앞뒤에 장식된 蓮花 또한 花形을 剝地한 뒤에 鐵砂點을 찍어서 造形效果를 도구했으며 항아리 어깨에는 고비 모양의 草文과 點文을 鐵繪로 어금매겨 그려서 매우 성근듯 싶으면서도 신선한 獨창적인 도안을 이루고 있으며 굽다리의위의 胴體下半身에도 蓮瓣文으로 보이는 鐵繪文을 둘러그렸다. 이 鐵繪蓮瓣文은 일찌기 中國元代 白磁의 靑華 또는 辰砂文에 나타난 것이며 明代 初期의 靑華白磁壺에서는 이미 쓰여졌던 무늬였다. 이러한 古格을 나타낸 鐵繪文과 高麗靑磁象嵌法의 眞은 餘韻等은 이 항아리가 지닌 古格을 뜻하는 것이다. 釉藥도 매우 透明度가 높고 淸澄한 靑白調를 나타내고 있으며 釉裂이 全面에 성글게 나타나 있으며 壺形은 입이 넓고 전이 있는 높은 목이어서 이것이 粉靑彫花文 壺에서 간혹 보이는 훌쭉한 樣式에 先行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귀얄로 粉彩를 하거나 白土泥에 덩빙 담가면 粉靑沙器에 鐵繪를 장식한 것은 十六世紀무렵 鷄籠山에서 量産되었으나 鷄籠山 鐵繪는 그 圖紋으로 보더라도 이미 흙냄새 같은 土俗味가 흥건한 作品이었다. 거기에 비해서 이 항아리의 鐵繪는 무늬 自體도 大陸 것을 아직 되색이지 못한 채로 받아들

렸으나 매우 圓熟한 筆致로 그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胴體의 蓮花그림도 거의 高麗末期 靑磁象嵌文을 연상시키는 솜씨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作品은 鐵繪종류의 粉靑沙器中에서 作品으로서도 높은 格調와 多樣한 造形效果를 거둔 例일뿐더러 時代的으로 보아도 十五世紀에서 더 내려오지 않는 秀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粉靑沙器가 마의 所在가 어디인지 지금 아무런 端緒는 없으나 다만 이러한 次元의 精緻함과 異色の인 粉靑沙器의 存在는 李朝陶磁史의 새 資料로서 注目を 받기에 充分하다.(黃圭董氏所藏 高二七cm、口徑一五cm、底徑九·八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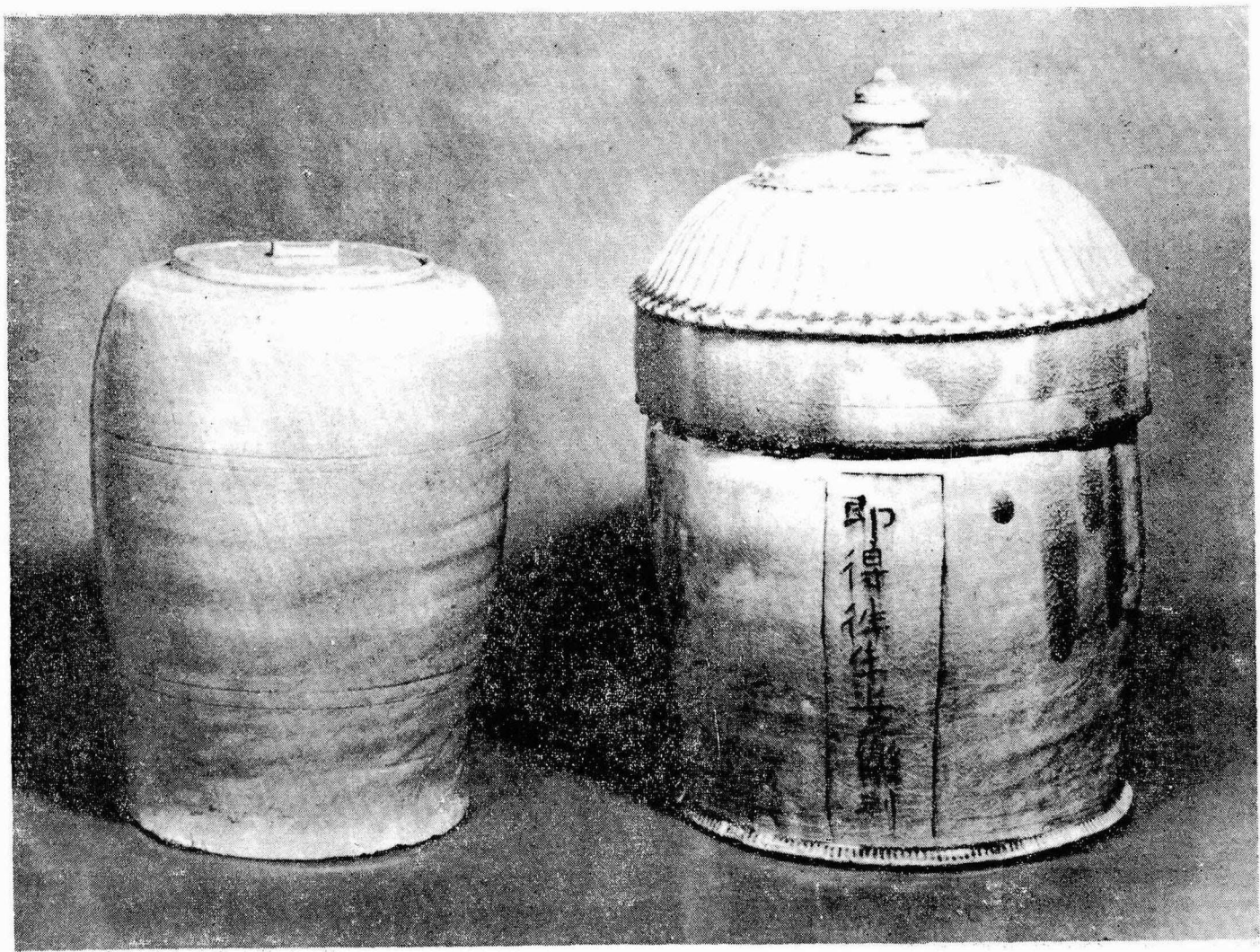
三、靑磁象嵌骨壺

內壺와 外壺로 나뉘어져 있는 靑磁象嵌葬骨容器的 一式으로서 當初부터 그러한 用途로 意匠된 것이다. 靑磁로 된 葬骨用器의 存在는 國立中央博物館 所藏品中에서도 이미 알려진 數例가 있으나 모두 十世紀、十一世紀무렵의 初期 高麗靑磁였다. 따라서 그 容器的 意匠도 아직 國風化되지 않아서 胴部兩面에 고비풀모양의 장식을 만들어 부쳤거나 全面에 裝嵌모양을 장식한 古格을 나타낸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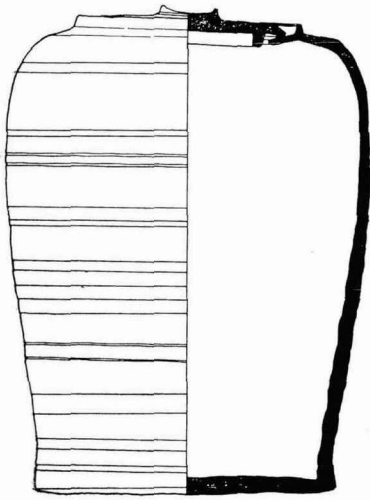
이 靑磁象嵌骨壺의 外壺는 뚜껑 天部の 中心에 三段으로 된 寶輪形이 장식되어 있고 그 傾斜面에는 굵은 紐비주름을 도를무늬로 表現했으며 뚜껑 垂直面에는 陰刻平行線 하나를 돌렸을 뿐이다. 外壺의 身部는 굽다리部分에 마치 방석처럼 보이는 얇은 주름줄이 붙어 있고 胴部 四面에는 黑象嵌으로 된 長方形線廓을 하나씩 配置하고 그 안에 자기 다음과 같은 發願文을 한출씩 黑象嵌해 넣어서 이것이 葬骨容器임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

「願我臨歛命終時」「盡除一切諸障礙」「面見彼佛阿彌陀」「即得往生安樂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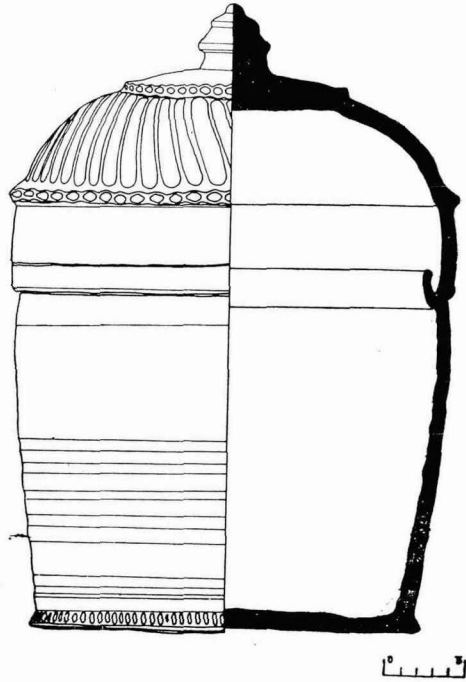
內壺는 圓筒形의 素文靑磁이며 胴部 上·中 두 군데에 陰刻平行雙線을 돌렸을 뿐이고, 뚜껑의 周椽部틀레에는 陰刻으로 表現한 紐비주름이 장식되어 있으며 뚜껑天部の 中心에는 兩端이 소스라친 矩形꼭지가 陰刻 同心圖안에 偏平하게 붙어 있다. 이 內壺의 內部는 施釉하지 않았으며



青磁象嵌骨壺 (李秉喆氏所藏)



(內壺)



(外壺)

青磁象嵌骨壺實測圖

굽 밑은 거치른 모래굽으로 되어 있다.

內壺의 釉調는 비교적 맑은 灰青色이며 全 釉裂이 全面에 나타나 있고, 外壺는 약간 酸化 燻造된 듯, 綠青色을 나타내고 있으며 釉調도 고르지 않고 설편 釉裂이 나타나 있어서 上質靑磁가 아님을 알 수 있다. 外壺의 뚜껑 天部に 장식된 三層寶輪形은 國立中央博物館所藏 統一新羅時代의 土器骨壺에서 그 例를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二重骨壺로는 一九六〇年 十二月 慶北月城郡 內南面 拜里에서出土되어 慶州博物館에서 收拾한 例를 들 수 있다. ④ 이 拜里出土의 骨壺는 外壺가 土器로 되어 있고 內壺가 一種의 白磁로 되어 있으며 이 白磁 內壺는 唐代것으로 보여지는 作品이었으나 外壺는 新羅末期 樣式을 나타냈으며 뚜껑 天部の 三層寶輪形은 이 靑磁象嵌骨壺의 寶輪과 매우 같은 樣式으로 되어 있을 뿐더러 內壺와 外壺가 모두 아래위가 거의 같은 圓筒形이어서 兩者가 모두 基本的으로 같은 格式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靑磁骨壺의 年代를 正確하게 알 수는 없으나 靑磁의 거친 釉胎와 象嵌技法 모래굽 밑의 마무리 등 時代的인 특징으로 보아 대략 十三世紀 後半項의 作品으로 推定 된다. (李秉喆氏所藏 內壺 總高 二九·八 cm, 蓋徑 一一·九 cm, 底徑 一八·四 cm, 外壺 總高三九 cm, 蓋徑 二六·五 cm, 底徑 二四·三 cm)

註

- ① 崔淳雨：「廣州道馬里 白磁窯址發掘調查略報」考古美術 六卷 六號、一九六五、六、
- ② 世祖實錄 卷三十四、九年甲申八月戊子條
- ③ 睿宗實錄 卷八 元年己丑冬十月乙卯條 秦
- ④ 秦弘燮：「州出土骨壺의 新例」考古美術 二卷 五號 一九六一、五月